한국어 의미학 34, 159-183 (2011. 04. 30.)

말뭉치에 나타난 부사 '더'와 '덜'의 의미 연구* **

봉 미 경
(연세대학교)

<Abstract>

Bong, Mikyung. 2011. A Corpus-based Approach to Antonymous Relations of Korean degree adverb *the*('more') and *thel*('less'). *Korean Semantics 34*. This paper investigates antonymous relations of Korean adverb *the*('more') and *thel*('less') based on Korean corpus. In order to clarify antonymous relations of two adverbs, this paper will examine dictionary definitions, semantic property, semantic distribution, and collocational information.

This paper analyzes 4979 sentences with keyword *the* and 497 sentences with keyword *thel* extracted from corpus. This study used the 10 million-word Sejong Modern Korean Corpus, which was manag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The and *thel* have two types of meaning: comparative meaning and numeral meaning. The most frequent case is comparative meaning, which is the most typical usage of *the* and *thel* and occurs with comparative expressions such as noun + *pota*('than'). Comparative expressions do not occur when they can be figured out from the context and situation meaning. Numeral meaning is found when *the* and *thel* occur with numeral expression such as numerals or numerals + unit nouns. Additionally, only *thel* has a meaning of uncompleted meaning, which occurs with verbs of having accomplishment points of events in aspectual meaning.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KRF2009-361-A00027)에 의해 이루어졌음.
** 이 논문은 제60회 조선학회 학술대회(2009년 10월 3일~4일, 일본 덴리대학)에서 발표한 요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논문을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고 적절한 조언과 비평으로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www.kci.go.kr

The study of antonym based on using corpus would contribute to the lexical analysis of Korean antonym and Korean corpus-based studies. At the same time, it would provide materials for Korean vocabulary teaching and lexicography for degree adverbs.

핵심어: 반의어(antonym), 정도부사(degree adverb), 말뭉치(corpus), 용례색인(concordance), 연어(collocation), 비교 구문(comparative structure), 수량 표현(numeral expression), 상적 동사(aspectual verb), 사전(dictionary), 어휘 교육(vocabulary education)

1. 도입

본 연구는 부사 '더'와 '덜'의 의미와 연어 정보 등의 어휘적 특성을 말뭉치 용례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어 교육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 부사 '더'와 '덜'은 의미적으로 반의관계이며 영어의 'more'와 'less'의 관계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나 영어와 달리, 일본어에는 '더'에 대응되는 개별 어휘로 'もっと(motto)', 'より(yori)'가 존재하나, '덜'에 대응되는 개별 어휘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1)]

(1) ㄱ. 더 깊다　　もっと高い
ㄴ. 더 먹어라　　もっと食べなさい

(2) ㄱ. 설악산보다 덜 높다　雪嶽山ほど高くない(설악산만큼 높지 않다)
ㄴ. 평소보다 덜 먹었다　普段より少なめに食べた(평소보다 조금 먹었다)
ㄷ. 덜 익은 감　まだ熟していない柿(아직 익지 않은 감)

1) 이 논문이 일본어의 대조 연구를 지향하고 있지 않음에도 서론에서 일본어와 비교하여 설명한 것은 일본어에는 '더'와 '덜'의 어휘적 반의어 쌍이 존재하지 않아서 일본어 모어화자 학습자들이 '덜'의 학습을 어려워하는 것을 교수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www.kci.go.kr

위 예문에서 '더 깊다, 더 먹어라'의 '더'는 모두 일본어의 'もっと'에 대응되어 번역되지만, '덜 높다, 덜 먹었다, 덜 익었다'의 '덜'은 '~만큼 ~ 않다, ~보다 조금, 아직 ~ 않다'와 같은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된다. 따라서 일본어 모어 화자가 한국어의 '덜'을 단순히 '더'의 반의어로만 학습하게 되면 오류 생성 없이 정확하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 부사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어와의 대조보다 한국어의 내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뭉치 용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더'와 '덜'의 의미와 용법 연구는 국어 어휘 의미 및 반의관계에 대한 논의로서도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이처럼 어휘 교육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2)]

본 연구에서 용례 분석을 위해 활용한 말뭉치는 '21세기 세종 계획'에서 구축한 배포용 현대 한국어 말뭉치로, 1000만 어절로 구성된 균형 말뭉치로, '더'가 쓰인 용례가 4979개, '덜'이 쓰인 용례가 497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3)]

2. 앞선 연구

부사 '더'와 '덜'에 대한 선행 연구는 반의어에 대한 연구와 부사에 대한 연구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한국어의 반의어 연구는 반의관계의 유형 분류 및 명사, 동사, 형용사들의 반의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립어의 유형 및 의미 양상을 다루고 있는 임지룡(1989)에서는 대립어를 '남자, 여자'와 같은 상보 대립어, '길다,

2)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는 한일 병렬 말뭉치 검색 결과를 참고하였다. 한일 병렬 말뭉치에서 '더'와 '덜'의 대응 양상을 살펴본 결과, '더'는 'もっと(더)', 'より(더)', 'いっそう(한층)', '余計に(더욱)', 'さらに(더욱더)', 'また(또한, 다시)' 등에 대응되는 한편, '덜'은 'さほど~ない(별로 ~ 않다)', 'あまり~ない(그다지 ~ 않다)' 등의 표현으로 의역이 되어 '부사+부정형'의 구성에 대응되고 있었다. 한일 병렬 말뭉치 검색은 고려대 이한섭 교수 홈페이지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http://nihon.korea.ac.kr/ (이 검색 서비스는 2009년 말까지는 이용 가능하였으나 2011년 4월 현재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임)

3) 말뭉치 용례 검색 결과 '더'의 용례 전체는 14640개였으나, 예문을 일일이 읽고 분석하기에는 용례 수가 방대하여 4979개의 샘플로 축소하여 분석하였다.

www.kci.go.kr

짧다’와 같은 반의 대립어(혹은 정도 반의어), ‘깨끗하다, 더럽다’와 같은 정도상보 대립어, ‘위, 아래’와 같은 방향 대립어로 분류하고, 반의관계에서의 극성, 유표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한국어 반의어의 전반적인 특성을 논하고 있는 전수태(1997)에서는 국어사전에 제시된 반의어 분석을 통하여 반의어의 유형을 상보 반의어, 관계 반의어, 정도 반의어로 분류하고, ‘긍정, 부정’등과 같은 부정 반의어, ‘위, 아래’ 등과 같은 공간 개념어의 반의, ‘선, 후’등과 같은 시간 개념어의 반의, ‘가다, 오다’와 같은 상황소가 개입된 반의관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을 위한 어휘 교육의 자료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신현숙(2005)에서는 반의어 ‘입다, 벗다’의 형태·통사 정보, 의미·화용 정보를 분석,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반의어의 어휘 정보 분석은 한국어 교육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4] 이상의 반의어 연구에서는 주로 명사, 동사, 형용사의 경우를 다루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사 ‘더, 덜’을 포함한 부사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부사에 대한 연구들에서 ‘더, 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서상규(1991)에서는 ‘더, 덜’을 대상과의 비교의 성격이 강한 정도부사로 분류하고 ‘한결, 한층, 일층, 더욱, 훨씬, 비교적, 보다, 가장, 제일’도 함께 비교 정도부사의 예로 제시하였다. 또한 ‘더, 덜’은 ‘가장, 제일’을 제외한 다른 비교 정도부사와 공기할 수 있고 ‘더한층, 한층더’와 같이 어순도 바꿀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서정수(2005)에서는 ‘더, 덜’을 비교 정도 부사류어로 분류하고 있는데, 비교 정도 부사류란 견줌의 대상에 이어지는 비교 서술을 한정하는 것으로 ‘더, 덜, 처럼, 만큼, 만치’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연구에서는 ‘글을 {더/덜} 잘 쓴다’에서 ‘더’는 생략될 수 있지만 ‘글을 덜 잘 쓴다’의 ‘덜’은 생략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비교 부사어류가 동작 자체를 수식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밥을 {더/덜} 먹었다’와 같이 ‘덜’이 동사를

4) 일련의 어휘쌍에 대한 의미 및 용법의 세밀한 분석은 반의어보다 유의어 연구에서 더 활발하다. 서상규(1989)는 ‘지금, 이제’, 봉미경(2005)은 ‘방금, 금방’, 유현경(2007a)은 ‘속, 안’, 유현경(2007b)은 ‘동안, 사이’, 유현경·남길임(2008)은 ‘아래, 밑’에 대하여 의미와 용법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들의 공통점은 말뭉치 용례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연구가 포착하지 못했던 어휘의 다양한 쓰임과 제약을 밝히려 했다는 점인데, 이러한 접근법은 의미적 유사성이나 관련성을 지닌 어휘들을 변별하는 데 필수적이다.

www.kci.go.kr

수식하는 예가 많으므로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한편, 한국어와 일본어의 정도부사를 대조하고 있는 장정래(2001)에서는 정도부사의 등급화를 시도하면서 '덜, 좀, 더, 그다지'를 정도량이 가장 낮은 5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덜'은 부정을 수반하지 않고 비교 기준보다 낮은 단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본어에 이러한 기능을 가진 정도부사가 보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일본어의 용례만을 분석하고 한국어는 직관에 의존하고 있어서 한국어의 '더, 덜'의 특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하지 않고 있다.

이상을 통하여 '더, 덜'의 반의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의 곳곳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 '더, 덜'의 의미와 용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말뭉치 용례 분석을 바탕으로 부사 '더'와 '덜'의 의미와 선행·후행 결합 요소 등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반의관계의 특성을 고찰할 것이다.

3. '더'와 '덜'의 의미

3.1. 사전 기술의 분석

말뭉치 분석을 통하여 두 부사의 의미와 용법을 밝히기 전에, 사전 6종의 의미 기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5)]

'더'에 대한 기존 사전의 의미 기술에서는 대부분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나누어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큰사전」, 「연세」, 「표준」, 「학습사전」에서는 '더'의 의미를 둘로 나누고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정도가 크게, 계속하여'(더 기다려 봅시다),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게'(겨울보다 밤이 더 길다)와 같이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의 품사에 따라 의미를 구분하는

5) 편의상 「우리말큰사전」은 「큰사전」, 「조선말대사전 은 「조선말」, 「연세한국어사전」은 「연세」,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 「조선어사전」은 「조선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은 「학습사전」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www.kci.go.kr

<표 1> ‘더’와 ‘덜’의 사전 뜻풀이 기술

	‘더’의 뜻풀이	‘덜’의 뜻풀이
큰 사전	①주로 움직씨와 함께 쓰이어, ‘계속하여’, ‘거듭하여’, ‘그 위에 보태어’ 들의 뜻. ¶왜, 좀 더 먹지. ㊥덜. ②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게. ¶겨울은 여름보다 밤이 더 길다. ㊥덜.	①주로 움직씨와 함께 쓰여 ‘어떤 분량에 모자라게’의 뜻이나 그 움직씨가 나타내는 행동을 채 못 함을 나타낸다. ¶잠을 덜 깨다. ㊥더. ②그림씨, 어찌씨들과 함께 쓰여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차지 못하게’, ‘적게’의 뜻을 나타낸다. ¶날씨가 어제보다 덜 춥다. ㊥더.
조선말	Ⅰ(동사와 결합하여) ①그 우에 보태여. ¶더 주다. ②그 이상 계속하여. ¶더 기다려 봅시다. Ⅱ(형용사나 형용사에서 이루어진 동사 또는 부사와 결합하여) 일정한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게. ¶더 깊다. 더 빨개지다. Ⅲ명사로도 쓰인다. ¶더는 없다고 잡아떼다.	①어떤 행동이 완전한 정도까지 이르지 못하게. ¶열성을 덜 내다. 잠이 덜 깨다. ㊥더. ②어떤 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덜 춥다. 덜 맵다.
연세	①(비교의 대상보다, 또는 주어진 기준보다) 정도가 크게. ¶나도 한 아이의 어미라는 느낌을 별로 못 가진 채 육아보다는 일에 더 충실했다. ㊥덜 ②바로 이전 상태보다 많게. 그 이상으로 계속하여. ¶그 다음 얘기는 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덜.	①[동사 앞에 쓰이어](어떤 행위가) 완전한 정도에 채 이르지 못하여. ¶아직 철이 잠에서 덜 깬 줄만 알고 어머니가 부드럽게 철의 손목을 끌었다. ②[주로 형용사나 부사 앞에 쓰이어] 일정한 상태가 정도에 미치지 못하게. 낮거나 적은 정도로. ¶머리를 내리면 덜 추울 텐데. ㊥더.
표준	①계속하여. 또는 그 위에 보태어. ¶더 먹다. ㊥덜. ②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더 높이/날씨가 어제보다 더 춥다. ㊥덜.	어떤 기준이나 정도가 약하게. 또는 그 이하로. ¶고구마가 덜 익다/잠이 덜 깨다/이 사탕이 저 사탕보다 덜 달다. ㊥더.
조선어사전	①(수량적으로) ¶하나 더 주세요. ②(시간적으로) ¶잠시만 더 기다려 봅시다. ③(정도가) ¶내일은 더 덥다고 한다. ④(부정의 표현과 함께 써서) ¶더 참을 수 없어.	①(주로 형용사나 부사 앞에 붙어) 조금. ¶어제보다는 덜 춥네요. ②(동사의 앞에 붙어) 아직 ~ 않다. ¶덜 익은 사과.
학습사전	①(비교의 대상보다) 정도가 크게. 수가 많게. ¶이 그림보다 저 그림이 더 좋아요. ㊥덜. ②바로 앞의 상태보다 많게. 그 이상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덜.	①(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완전하지 못하게. ¶그 포도는 아직 덜 익었어요. ②일정한 상태나 정도에 미치지 못하게. 보통보다 낮거나 적게. ¶추울 때 뜨거운 걸 먹으면 좀 덜 추워요. ㊥더.

www.kci.go.kr

것은 정도부사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자주 사용된 설명 방식이다. 서정수(2005)에서도 정도부사는 형용사와 관형사, 동태부사류, 지정사구의 일부를 수식한다고 설명하고, '무척 좋아하다'처럼 정도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정도부사 뒤에 '많이', '오래' 등의 부사가 생략된 것으로 정상적인 정도부사의 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더'가 동사를 수식하는 '더 기다려 봅시다'에서도 '더' 뒤에 '많이', '오래'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오래 기다리다'와 '더 기다리다'가 반드시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도 없으며, '더'의 수식을 받는 동사도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더'가 동사 앞에 쓰이는 경우에 생략된 부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더'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의 의미적 특성을 고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조선말」과 「조선어」에서는 다른 사전에 없는 다른 의미 항목도 제시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수량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하나 더 주세요)와 명사적으로 쓰이는 경우(더는 없다고 잡아뗐다)가 이에 해당된다. 수량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는 의미적, 문법적 특성도 달리 나타나므로 다음 장에서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한편, 명사적 쓰임으로 제시된 '더'는 보조사 '는'이 결합되어 있어도 여전히 부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더는'이 쓰인 용례는 모두 부정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때 이때의 보조사 '는'은 부정문과 호응하는 부사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덜'에 대한 사전 뜻풀이를 살펴보면, 표준」을 제외한 모든 사전에서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주로 동사 앞에 와서 '어떤 동작이 완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게'(잠이 덜 깼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과, 형용사나 부사 앞에 와서 '기준보다 정도가 낮게'(덜 춥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도 부사 '덜'이 수식하는 대상의 품사에 따라 구분하기보다는 의미적, 문법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준」에서는 예문 '잠이 덜 깨다'와 '사탕이 덜 달다'에 쓰인 부사 '덜'이 모두 '더'를 반의어로 가지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잠이 더 깨다'와 '잠이 덜 깨다'가 반의관계를 형성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전에서 세밀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 두 부사의 다의성, 반의관계는 말뭉치 분석을 통하여 밝힐 수 있다.

www.kci.go.kr

3.2. 의미와 용법 분석

여기에서는 사전 의미 분석과 용례 분석을 바탕으로 '더'와 '덜'의 의미와 의미별 특성을 살펴본다.

우선 기존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더'와 '덜'은 어떤 비교 대상을 기준으로 이들이 수식하는 대상의 정도성이 강하거나 약한 모양을 표시하며, 동사, 형용사, 부사, 상태성이 강한 명사를 모두 수식할 수 있다. 다음 예문들에서 비교 대상은 '~보다, ~에 비해' 등의 비교 표현에 의하여 문장 내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3) ㄱ. 애정은 돈보다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민감하기 때문인가?
ㄷ. 우리는 어쩌면 고대의 제왕들보다 {더} 잘 먹는지도 모릅니다.
ㄹ. 쌀을 팔아서 쌀보다 {더} 오염된 국수나 라면을 사 먹는 것이 우리 농민의 현실이다.
ㅁ. 남자가 여자보다 {더}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다.
ㅂ. 지금 내 꼴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의 무시킨보다도 {더} 바보고 처참하다.

앞의 예문 (3)에서 '더'는 문장 내에서 두 대상을 서로 비교하여 그 우열을 나타내며, 형용사, 부사, 동사, 상태성이 강한 명사를 다양하게 수식하고 있다. 이처럼 비교 기준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서 비교 대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장의 경우는 (4)에서 보듯이 '더'가 생략되어도 명제적 의미가 유지된다.

(4) ㄱ. 애정은 돈보다 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민감하기 때문인가?
ㄷ. 우리는 어쩌면 고대의 제왕들보다 잘 먹는지도 모릅니다.
ㄹ. 쌀을 팔아서 쌀보다 오염된 국수나 라면을 사 먹는 것이 우리 농민의 현실이다.
ㅁ. 남자가 여자보다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다.
ㅂ. 지금 내 꼴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의 무시킨보다도 바보고 처참하다.

www.kci.go.kr

예문 (5)는 '덜'이 문장 내에서 두 대상의 우열 관계에서 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이는 예문이다. '덜'도 형용사, 부사, 동사, 명사를 다양하게 수식한다.6)

(5) ㄱ. 분노는 격노보다 {덜} 강렬하다.
ㄴ. 그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로 고양이들이 개들에 비해 손이 {덜} 간다는 점을 꼽았다.
ㄷ.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화초에 물을 {덜} 주어야 한다.
ㄹ. 덕산 온천은 온양 온천에 비해 {덜} 알려져 오히려 조용하다.
ㅁ. 이곳은 파리의 박물관보다는 {덜} 중세적이다.

'더'가 생략되는 경우는 비교 관계에서의 명제적 의미가 유지되는 반면, 유표성이 강한 '덜'이 생략되면 문장 전체의 명제적 의미가 달라진다. (6)은 예문 (5)에서 '덜'을 생략한 것이다.7)

(6) ㄱ.?분노는 격노보다 강렬하다.8)
ㄴ.?그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로 고양이들이 개들에 비해 손이 간다는 점을 꼽았다.
ㄷ.?장마철에는 평소보다 화초에 물을 주어야 한다.
ㄹ.?덕산 온천은 온양 온천에 비해 알려져 오히려 조용하다.
ㅁ.?이곳은 파리의 박물관보다는 중세적이다.

'더, 덜'이 쓰이고 비교 대상도 명시된 전형적인 비교 구문인 앞의 예문 (3), (5)는 비교적 분명한 반의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예문에서

6) (5ㄷ)은 같은 시점에서의 다른 대상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동일 대상에 대한 시간에 따른 차이의 비교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른 시점의 동일 대상 역시 동일한 지시물은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시간 차이도 대상의 차이로 해석하도록 하겠다.

7) 임지룡(1989)에 따르면 많은 언어학자들이 '길다, 짧다', '크다, 작다'와 같은 반의 대립어에서 '길다, 크다'는 적극적이고 단순한 무표항(unmarked item)이고 '짧다, 작다'는 소극적이고 복잡한 유표항(marked item)으로 설명하며 무표항이 빈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더, 덜'의 관계에서는 '더'가 무표항, '덜'이 유표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 예문 (6)의 ? 표시는 수정하기 전 예문인 (5)와 의미가 달라졌음을 뜻하며, 비문에 대한 판정 결과는 아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의미로 ? 표시를 사용하겠다.

www.kci.go.kr

‘더, 덜’의 위치에 부사를 서로 바꾸어 넣고 반의문을 작성하는 것이 대체로 가능하다. 예문 (7), (8)은 예문 (3), (5)에 대하여 반의문을 작성한 것이다.

(7) ㄱ. 돈은 애정보다 {덜} 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덜} 민감하기 때문인가?
ㄷ. 어쩌면 고대의 제왕들은 우리보다 {덜} 잘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ㄹ. 국수나 라면보다 {덜} 오염된 쌀을 팔아 다시 그것들을 사 먹는 것이 우리 농민의 현실이다.
ㅁ. 여자가 남자보다 {덜}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다.
ㅂ.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의 무시킨은 지금 내 꼴보다도 훨씬 {덜} 바보고 처참했다.

(8) ㄱ. 격노는 분노보다 {더} 강렬하다.
ㄴ. 그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로 개들이 고양이들에 비해 손이 {더} 간다는 점을 꼽았다.
ㄷ. 평소에는 장마철보다 화초에 물을 {더} 주어야 한다.
ㄹ. 온양 온천은 덕산 온천에 비해 {더} 알려져 붐빈다.
ㅁ. 파리의 박물관은 이곳보다 {더} 중세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예문에 ‘~보다, ~에 비해서’처럼 비교 대상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비교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비교와 우열 관계의 대상이 맥락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9) ㄱ. 섬 주민은 폴리네시아 인으로 미크로네시아 인과 닮았으나, 키가 크고 살진 편이며 몽고 인종에 {더} 가깝다.
ㄴ.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독특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과학이 {더} 발달하면 해명될지도 모른다.
ㄷ. 인간은 현재의 빛으로 과거를 비추어 봄으로써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9)에서는 비교 대상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맥락에 비추어 볼 때 ㄱ은 ‘미크로네시아 인’, ㄴ, ㄷ은 ‘지금’이 비교 대상임을 유추해 낼 수 있다.

www.kci.go.kr

지금까지 살펴본 의미는 비교 기준을 중심으로 비교 관계 및 우열 관계를 표시하는 '더'와 '덜'의 대표적인 의미인데, 이를 다음에서 설명할 다른 의미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비교] 의미로 표시하겠다.

[비교] 의미를 나타낼 때는 '더'에 보조사 '은/는'이 결합한 예가 64개 출현했다. 「조선말」에서는 이를 명사적 용법으로 파악하였으나, (10)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은 주어, 목적어의 자리에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않다', '없다' 등의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부사 '더'를 강조하기 위하여 보조사가 결합된 것이다. '덜'에 '은/는'이 결합된 용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더'가 '없다'를 자주 수식하는 데 반하여 '덜'이 '없다'를 수식하는 용례가 없는 현상(4.2. 참고)과도 부합되는 특징이다.

(10) ㄱ.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소금이 {더는} 녹지 않을 때까지 넣는다.
ㄴ.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신 여사의 말을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어 수혜는 울면서 벌떡 일어섰다.
ㄷ. 선생님은 소지품 검사에 바쁜 탓인지 {더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다른 보조사가 결합된 예로는 '더'와 '덜'에 보조사 '도'가 결합된 용례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반드시 동사 없이 '말다', '않다'처럼 부정을 나타내는 동사와 호응하는 구성을 이루어 관용 표현처럼 쓰인다. (11ㄹ)의 '더도 말고'처럼 '더도'만 나타나는 예는 있으나, '덜도'는 반드시 '더도'와 공기하여 나타나고 있어서 '덜'의 용법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11) ㄱ. 예로부터 '{더도 덜도} 말고 팔월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전해 옵니다.
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봉급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는 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ㄷ. 선생님은 {더도 덜도} 않고 하루에 꼭 두 자씩만 가르쳐 주셨다.
ㄹ. 시설 좋고 돈 제때 나오는 데서 {더도} 말고 3년만 죽어라고 일해야겠어.

다음으로 '더'와 '덜'이 수량 표현과 공기할 때는 '수량이 일정 기준보다 더하거나 부족함'의 의미를 나타난다. 이때의 수량 표현은 수사 단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수사와 단위성 의존명사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www.kci.go.kr

(12) ㄱ.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에 동문들의 호응이 크다고 한다.
ㄴ.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면 나한테 공대말을 쓸 수 없니?
ㄷ. 나귀는 {더} 하나의 당근을 얻자는 수작으로 걸음을 늦추었다.
ㄹ. 당신 술 한 번 {덜} 마신 셈 치면 된다구요.

(12)의 ㄱ, ㄴ, ㄹ에서는 수사와 단위성 의존명사가 함께 나타나 있고, ㄷ에서는 수사 단독으로 나타나 있다. 수량이 비교 기준보다 더하거나 부족함을 나타낼 때도 '나는 너보다 한 살 더 먹었다', '너는 나보다 한 살 덜 먹었다'처럼 반의관계를 나타낼 수는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다. 우선 '더'에 비하여 '덜'은 수량 표현과 공기하는 일이 드물어서 497개의 용례 중 오직 3개의 용례에서만 수량 표현과 공기하고 있었다. 또한 '더'는 수량 표현을 선행, 후행에 모두 동반할 수 있으나(12ㄱ~12ㄷ), '덜'은 선행 요소로만 동반한다(12ㄹ). 따라서 수량 표현과 공기하여 수량이 더함을 나타내는 것은 주로 '더'의 용법으로 보아야 하며, 이 용법에서 '더'와 '덜'의 반의관계를 이루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량 표현과 함께 쓰여서 특정 기준보다 수량이 더하거나 부족함을 나타내는 의미는 [수량] 의미로 표시하겠다.

'더'와 '덜'이 [수량] 의미를 나타낼 때 '더'와 '덜'이 생략되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13) ㄱ.?등록금 한 번 내기 운동에 동문들의 호응이 크다고 한다.
ㄴ.?이제 한 살 먹었으면 나한테 공대말을 쓸 수 없니?
ㄷ.?나귀는 하나의 당근을 얻자는 수작으로 걸음을 늦추었다.
ㄹ.?당신 술 한 번 마신 셈 치면 된다구요.

그러나 특정 비교 기준보다 수량이 늘어나는 정도를 나타낸다는 의미를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을 때는 '더'가 생략되어도 의미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14) ㄱ. 그의 체중은 고교 시절보다 5킬로 {더} 불어난 상태이다.
ㄴ. 그의 체중은 고교 시절보다 5킬로 불어난 상태이다.
ㄷ. 인버터 형광 등의 경우 종래의 형광등보다 약 20퍼센트 {더} 절약된다.

www.kci.go.kr

ㄹ. 인버터 형광 등의 경우 종래의 형광등보다 약 20퍼센트 절약된다.

(14)의 ㄱ, ㄷ은 늘어난 수량에 대한 비교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ㄴ, ㄹ처럼 ‘더’가 생략되어도 문장의 명제 의미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이는 ‘더’가 비교 의미를 나타낼 때도 문장에 비교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면 ‘더’가 생략 가능하다고 했던 특징이(4ㄱ~4ㅂ) 수량 표현과 함께 쓰일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할 의미는 ‘덜’이 ‘끝나다, 깨다, 녹다’처럼 사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상적 의미가 강한 동사와 함께 쓰여서 ‘사태가 완성의 상태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부사 ‘덜’에만 적용된다.

(15) ㄱ. 나는 잠이 {덜} 깨어서 심드렁하게 대꾸한다.
ㄴ. 마취가 {덜} 된 걸까. 손에서 진땀이 아 쥐고 있던 책 표지가 미끄덩거렸다.
ㄷ. 근데 계란이 {덜} 삶아졌나 봐요.
ㄹ. 석유 {덜} 탄 냄새와 오징어의 구리구리하고 구수한 냄새가 엇갈려 날아왔다.

(15)에 나타난 ‘깨다, 마취되다, 삶아지다, 타다’ 등의 동사는 동작이나 사태가 끝, 완결, 완료를 나타내는 상적 의미를 가진다. ‘덜’이 이러한 동사들을 수식하면 동일 대상에게 일어나는 사태가 아직 완료에 미치지 못했다는, 내적 변화에 대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 의미는 ‘덜’의 예문에서만 나타나므로 이 의미에서는 ‘더’와의 반의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동사들이 ‘더’의 수식을 받을 때는 완료를 향하여 변화하는 동일 대상의 사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대상의 우열 관계를 비교하는 [비교] 의미를 나타낸다.(16ㄱ~16ㄴ)

(16) ㄱ. 역시 남들보다 조금 더 튀겠구나. 조금 {더} 성공하겠구나.
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본 여러 집보다 {더} 낡아 보이는 집이었다.

오히려 ‘잠이 덜 깨다, 마취가 덜 되다, 계란이 덜 삶아지다, 석유가 덜 타다’의 반의표현은 ‘잠이 더 깨다, 마취가 더 되다, 계란이 더 삶아지다, 석유

www.kci.go.kr

가 더 타다'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등의 수식에 의하여 양태 의미를 표시하는 '잠이 아주 깨다, 마취가 완전히 되다, 계란이 완전히 삶아지다, 석유가 아주 타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덜'의 의미를 [불급] 의미라 부르도록 하겠다. '덜'이 [불급] 의미를 나타낸 용례 중에서 고빈도로 나타난 용언들은 다음과 같다.

(17) '덜'의 [불급] 의미가 수식하는 용언
깨다(25), 되다(25), 익다(12), 마르다(8), 차다/채우다(7), 들다(4), 타다(4), 풀리다(4), 피다/피우다(3), 맞다(3), 끓다/끓기다(2), 보다(2), 성숙되다(2), 썩다(2), 여물다(2), 자다(2), 자라다(2)

'더'와 '덜'의 용례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의미별로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정리한 것이 <표 2>와 <표 3>이다.

<표 2> '더' 용례의 의미별 분포

의미 유형	용례 수	비율(%)	비교 표현 제시 용례 수 (의미별 비율)
[비교] 의미	4226	84.9	1042 (24.7%)
[수량] 표시	346	6.9	22 (6.4%)
어근 형성	407	8.2	6 (1.5%)
전체	4979	100	1070 (21.5%)

'덜'의 의미에는 마지막에 제시한 [불급] 의미도 함께 포함된다.

<표 3> '덜' 용례의 의미별 분포

의미 유형	용례 수	비율(%)	비교 표현 제시 용례 수 (의미별 비율)
[비교] 의미	338	68.0	65 (19.2%)
[수량] 표시	3	0.6	0 (0%)
[불급] 의미	144	29.0	0 (0%)
어근 형성	12	2.4	3 (25.0%)
전체	497	100	68 (13.7%)

www.kci.go.kr

<표 2>와 <표 3>에서 ‘어근 형성’은 ‘더’와 ‘덜’이 다른 어절을 수식하지 않고 ‘더하다, 더없이, 더더욱, 덜하다, 덜떨어지다’처럼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기 위해 어근으로 쓰이는 경우에 해당된다. 엄격하게 보면 ‘더’와 ‘덜’의 용례에 포함될 수는 없겠지만, 이 중에는 ‘더이상, 더한층’처럼 아직 한 단어로 완전히 자리매김하지 못하여 새로운 단어인지 부사구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어휘 사전이나 어휘 교육을 위한 어휘 정보 구축의 측면에서는 ‘더’와 ‘덜’을 어근으로 한 관련 어휘들의 목록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미별 분포에 함께 제시한다. ‘더’가 결합된 새 단어로는 ‘더하다, 더없다, 더욱더, 더더욱, 더이상, 더한층’이, ‘덜’이 결합된 새 단어로는 ‘덜하다, 덜되다, 덜떨어지다’가 있다.

표의 마지막 열에 제시된 ‘비교 표현 제시 용례 수’는 ‘~보다’, ‘~에 비해서’와 같은 비교 기준 표현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용례 수이다. ‘더’와 ‘덜’의 [비교] 의미 용례 중 비교 기준 표현이 제시된 예가 20% 안팎인 것으로 보아, 비교 기준이 맥락에서 유추 가능하여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장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4. 연어 정보의 분석

이 장에서는 ‘더’와 ‘덜’에 결합하는 선행 요소 및 후행 요소, 즉 연어 정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사는 서법, 상적 의미 등에서 용언의 특정한 실현 양상만을 취하거나, 특정 어미와 호응하여 자주 쓰이거나, 다른 부사나 특정 용언과 제한적으로 연결되어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결합 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결합 제약뿐만 아니라 어떤 연어 구성이 자주 쓰이는가 하는 ‘경향’도 알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어휘쌍(여기서는 반의어쌍)의 실제 쓰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4.1. 선행 결합 정보

먼저 ‘더’와 ‘덜’의 바로 앞에 선행하는 요소들을 정리한 결과를 살펴본다.

www.kci.go.kr

선행 요소들은 ‘더’와 ‘덜’을 수식하는 다른 부사 및 부사어들이다.

<표 4> ‘더’와 ‘덜’의 선행 결합 요소

선행 요소	‘더’의 용례 수	‘덜’의 용례 수
가장	-	8
더욱	30	-
보다[9]	31	12
비교적	-	7
상대적으로	4	5
아주	-	1
아직	1	25
약간	6	3
점점	73	-
점차	1	-
조금	55	14
좀	118	20
차츰	1	-
한결	10	1
한참	3	-
한층	52	-
훨씬	133	10
전체	518	106

‘더’의 경우는 ‘훨씬, 점점, 점차, 차츰, 한층, 보다’처럼 변화나 비교를 나타내는 다양한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것이 특징이며, 최상급의 의미를 지니는 ‘가장’은 출현하지 않았다.

‘덜’의 경우도 ‘비교적, 훨씬, 보다, 조금, 좀’ 등처럼 비교의 정도를 나타내

9) 여기에서의 ‘보다’는 비교 대상에 붙는 조사 ‘보다’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사 ‘보다’이다.

ㄱ. 온라인 게임은 멀티미디어를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모양이었다.
ㄴ. 그들은 미국에 보다 덜 의존하는 외교 정책을 모색키 위해 논의도 했다.

www.kci.go.kr

는 다양한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다. '더'와 구별되는 '덜'만의 특징으로는 [불급] 의미를 나타낼 때 부사 '아직'이 자주 나타났다는 점과, '더'와 달리 최상급의 의미를 지니는 '가장'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8) ㄱ. 형기는 술이 아직 {덜} 깼는지 눈이 벌겋다.
ㄴ. 그런 사람을 만나기엔 난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위 예문들은 각각 '술이 깨다'와 '성숙하다'가 완료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불급]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미완을 강조하는 부사 '아직'의 수식을 받음으로써 [불급]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다음으로 최상급의 의미를 지니는 '가장'의 수식을 받는다는 예문을 살펴본다.

(19) ㄱ. 그 티켓은 오로지 날짜만 다르니까 가장 눈에 {덜} 띌 거야.
ㄴ. 격렬한 토론 끝에 자발적 희생자가 없다면 가장 {덜} 억울한 사람을 뽑는 것이 좋겠다.

손세모돌(1998) 등의 앞선 연구에서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와 최상급을 나타내는 '가장, 제일'은 공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말뭉치 용례 중에는 위와 같이 '덜'과 '가장'이 공기하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 예문을 다음과 같이 '더'와 '가장'이 공기하는 문장으로 고쳐 보면, 여전히 이들은 자연스럽게 공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0) ㄱ. 그 티켓은 색깔이 특이해서 눈에 {더} 띄었다.
ㄴ.*그 티켓은 색깔이 특이해서 가장 눈에 {더} 띄었다.
ㄷ. 격렬한 토론 끝에 {더} 억울한 사람은 뽑지 않기로 했다.
ㄹ.*격렬한 토론 끝에 가장 {더} 억울한 사람은 뽑지 않기로 했다.

그렇다면 '가장'과 공기하는 것은 '덜'만의 특성인데, 이는 '덜'이 [비교] 의미 외에 [불급] 의미를 지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덜'의 수식을 받으면 '눈에 띄다, 억울하다'가 지시하는 상태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를

www.kci.go.kr

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의 수식을 받음으로써 그러한 상태들 중 그 정도가 최고로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4.2. 후행 결합 정보

'더'와 '덜'의 후행 결합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치상 해당 어휘의 바로 다음에 오는 형태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더'와 '덜'의 직접적인 피수식어와 피수식어 아닌 다른 요소를 함께 조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더'와 '덜'의 피수식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더'와 '덜'의 다음 위치에 오는 단어를 무조건 수집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문장 내에서 '더'와 '덜'의 수식을 받는 단어를 수작업으로 찾아서 피수식어의 품사들을 정리하였다. '더'와 '덜'의 용례 중에서 어근을 형성하는 경우는 피수식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용례들에 대해서만 피수식어를 조사하였다.[10]

<표 5> '더'의 피수식어의 분포

피수식어 품사	[비교] 의미		[수량] 표시	
	용례 수	비율(5%)	용례 수	비율(%)
동사	1495	35.4	309	89.3
형용사	2009	47.5	16	4.6
부사	433	10.2	4	1.2
존재사	82	1.9	7	2.0
명사	202	4.8	2	0.6
수사	-	-	3	0.9
피수식어 없음	5	0.1	5	1.4
전체	4226	100	346	100

'더'의 피수식어는 형용사, 동사, 부사, 명사, 존재사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며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교] 의미에서는 동사, 형용

10)용례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0' 대신 '-'로 표시한 것은 말뭉치의 규모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www.kci.go.kr

사, 부사 모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모두 '더'의 수식을 받는 품사로 볼 수 있다.

[수량] 표시를 나타내는 '더'의 경우에는 '한 개 더 주세요', '두 번 더 읽었다' 등과 같이 수량과 관련된 행위를 지시하는 의미를 가진 문장이 많아서 동사가 피수식어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 '덜'의 피수식어의 분포

피수식어 품사	비교		수량		불급	
	용례 수	비율(%)	용례 수	비율(%)	용례 수	비율(%)
동사	207	61.2	3	100	142	98.6
형용사	99	29.3	-	-	2	1.4
명사	32	9.5	-	-	-	-
전체	338	100	3	100	144	100

'더'의 피수식어에 비하여 '덜'의 피수식어는 동사, 형용사, 명사 등으로 제한적인 형태로 나타났으며, [비교] 의미로 쓰일 때 가장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반면에 [수량] 의미와 [불급] 의미의 용례에서는 '덜'이 주로 동사를 수식하였다. 이처럼 '덜'의 피수식어에서도 동사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살펴본 서정수(2005)의 지적과 상충된다. 서정수(2005)는 '더, 덜'이 동작 자체를 수식하지 않고 동태 수식 부사를 수식한다고 하였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더'의 동사 수식 예문 1804개(어근 형성을 제외한 용례 전체 중 39.5%)와 '덜'의 동사 수식 예문 352개(어근 형성을 제외한 용례 전체 중 72.6%)에서 모두 어떤 부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절반에 달하는 용례에서 부사의 생략을 상정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정도부사의 수식 대상으로 다양한 품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11]

피수식어의 품사에 따른 다양한 용례를 아래에 제시한다. (21ㅅ)은 피수식어가 등장하지 않는 예이다.

11)정도부사가 다양한 품사를 수식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서상규(1991b) 참조.

www.kci.go.kr

(21) ㄱ. 용서하지 못하는 건 용서받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다.
ㄴ. 경작권보다 경작의 의무가 {더} 강조되고 있다.
ㄷ. 정확한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 경쟁의 승패가 판가름 나죠.
ㄹ. 이번엔 혈압이 아니라 당뇨가 {더} 문제란다.
ㅁ.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감정적입니다.
ㅂ. 등산용 밥그릇에 눌어붙은 밥이 여느 밥보다도 {더} 맛이 있었습니다
ㅅ. 나는 하나만 {더}. 긴 것으로 하나만 {더}."하고 안달을 했다.

(22) ㄱ. 선원들의 술이 {덜} 깬 얼굴들이 두꺼비처럼 눈을 끔벅였다.
ㄴ. 자꾸 맞아 버릇하면 {덜} 아프고 실연도 여러 번 하면 {덜} 괴롭다.
ㄷ.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치고 찢길 대로 찢긴 정신대 할머니들의 길지 않을 여생이나마 {덜} 고통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ㄹ. 그 후 당신이 나에게 보여 준 운동하는 선배로서의 모습은 훨씬 {덜} 매력적이었어요.

피수식어의 분포에서 특이한 사항으로 '더'의 피수식어인 부사의 빈도가 매우 높은 것과 달리, '덜'의 피수식어로는 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의 용례에서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등이 매우 고빈도로 나타나지만, '덜 빨리, 덜 많이, 덜 높이'처럼 부사를 수식한 예는 말뭉치 용례에서 찾기 어려웠고 형용사의 부사형만 일부 나타났다(22ㄷ).[12]

5. 한국어 교육에서의 활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실제 용법 중심의 어휘 정보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의어와 마찬가지로 반의어 목록만 제공받은 학습자는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다'와 반대 의미를 가진 문장을 지을 때 '평소보다 덜 많이 먹었다'처럼 모어 화자와 다른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외국어

12)말뭉치에서 '덜'의 피수식어로 부사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가 부사를 수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분석 결과는 '덜'의 용법을 교수할 때 부사보다는 동사, 형용사의 예시 위주로 제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www.kci.go.kr

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용법 중심으로 명백한 어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더’와 ‘덜’의 말뭉치 용례 분석 결과를 한국어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간단히 제안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로, 말뭉치 분석 결과는 어휘의 의미 및 사용법의 교수 순서를 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와 용법은 모어 화자들이 더 자주 사용하는 어휘와 용법이므로 실제 교수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빈도 높은 어휘와 용법을 먼저 지도할 수 있다. ‘더’와 ‘덜’ 중 빈도가 높은 ‘더’를 먼저 도입하여 지도하되, ‘더’를 지도할 때는 빈도가 높은 [비교] 의미를 먼저 지도한다. 「연세 한국어」의 경우 ‘더’는 1급에서 ‘덜’은 3급에서 처음 도입되는데 이러한 순서는 적절해 보인다. 각 부사의 의미와 용법을 지도할 때는 빈도가 가장 높은 [비교] 의미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으로 ‘더’의 [수량] 의미, ‘덜’의 [불급] 의미 순으로 지도해야 한다. ‘덜’의 [수량] 의미는 497개 중 3개 용례에만 나타나고 있으므로 ‘더’의 [수량] 의미와 같은 수준으로 강조하여 지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둘째로, 말뭉치 분석 결과에서 파악된 다양한 연어 정보는 각 용법을 교수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더’와 ‘덜’의 교수에 활용 가능한 연어 정보로는 ‘더’와 ‘덜’에 자주 동반하는 ‘~보다’ 등의 비교 표현, ‘더’와 ‘덜’의 피수식어의 종류, ‘더’와 ‘덜’을 수식하는 부사의 종류가 있다.

우선 [비교] 의미의 용례에서 ‘~보다, ~에 비해서’ 등의 비교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는 ‘더’가 24.7%, ‘덜’이 19.2%인데, [비교] 의미를 지도할 때 ‘A가 B보다 더/덜 ____’과 같은 문형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더’와 ‘덜’의 피수식어는 각 의미별로 자주 나타나는 품사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교수용 예문을 작성해야 한다. ‘더’의 [비교] 의미는 피수식어로 오는 형용사와 동사가 모두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수량] 의미에서는 ‘하나 더 주세요’처럼 동사가 월등히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교수 순서 결정과 예문 제시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덜’의 [불급] 의미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동사의 특징이 뚜렷한 편이므로, [불급] 의미에 자주 나타나는 고빈도 동사의 목록을 말뭉치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면 유용할 것이다.

www.kci.go.kr

‘더’와 ‘덜’을 수식하는 부사의 경우도 각 의미별로 유용한 부사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덜’의 [비교] 의미와 ‘덜’의 [불급] 의미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부사의 종류가 다름을 고려하여 부사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제시될 수 있는 부사들은 난이도가 다양하므로 한꺼번에 모두 교수할 수는 없으며, 부사들의 난이도에 따라 교수 순서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 부사들이 교수 순서에 맞게 새롭게 제시될 때마다 이와 함께 ‘더’와 ‘덜’의 교수 내용을 다시 복습할 수 있다.

셋째, 말뭉치 분석 결과에서 발견된 관련 어휘들도 함께 지도할 수 있다. ‘더’와 ‘덜’의 용례 분석 결과 ‘더’와 ‘덜’을 어근으로 하여 형성된 ‘더하다, 더없이, 덜하다, 덜떨어지다’ 등의 어휘 목록이 발견되었다. 이들 어휘는 ‘더’와 ‘덜’의 주요 용법을 교수한 후에 참고 어휘로 함께 제시하거나, 혹은 이 어휘들을 처음 도입하여 교수하는 단계에서 학습자의 의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더’와 ‘덜’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표 7> ‘더’와 ‘덜’의 교수 순서와 내용

제시 순서	의미	교수 내용	
1	‘더’의 [비교] 의미	피수식어	형용사, 동사, 부사, 명사 등의 순
		비교 표현	‘~보다, ~ 비해서’
		수식 부사	‘더욱, 점점, 조금, 좀, 한층, 훨씬’ 등
		관련 어휘	‘더없이, 더하다, 더 이상, 더더욱’ 등
2	‘더’의 [수량] 의미	피수식어	동사, 형용사, 존재사, 부사 등의 순
		비교 표현	‘~보다, ~ 비해서’
3	‘덜’의 [비교] 의미	피수식어	동사, 형용사, 명사의 순
		비교 표현	‘~보다, ~ 비해서’
		수식 부사	‘보다, 비교적, 조금, 좀, 훨씬’ 등
		관련어	‘덜하다, 덜떨어지다’
4	‘덜’의 [불급] 의미	피수식어	동사, 형용사의 순
		고빈도 피수식어	‘깨다, 되다, 익다, 마르다, 차다, 타다’ 등
		수식 부사	‘아직, 조금, 좀’ 등

www.kci.go.kr

<표 7>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13] '더'와 '덜'의 의미를 교수 순서에 따라 왼쪽에 제시하고 각 의미별로 함께 제시할 주요 교수 내용을 오른쪽에 정리하였다. 그런데 각각의 의미를 처음으로 지도할 때 오른쪽 교수 내용을 한꺼번에 지도할 수는 없다. 오른쪽 교수 내용에는 새롭게 교수해야 할 또 다른 어휘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어휘들은 학습자 수준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도입해야 한다.

실제로 사용된 언어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맥락에서의 사용 양상과 선행·후행 요소와의 결합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어휘 정보는 한국어 어휘 교육 현장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화(2000), 코퍼스를 이용한 부사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17호, 이중언어학회

강현화(2001), 빈도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12-1,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노마 히데키(2002),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 구조」, 태학사

박덕유(1998), 「국어의 동사 상 연구 , 한국문화사

봉미경(2005), "시간부사의 어휘 변별 정보 연구 -유의어 '방금'과 '금방'의 분석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0,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서상규(1989), "시간부사의 시간표시기능에 대하여 -'지금'과의 비교를 통한, 시간부사 '이제'에 대한 연구", 朝鮮學報」133, 朝鮮學會

서상규(1991a), "정도부사에 대한 국어학사적인 조명과 그 분류에 대해", 「연세어문학」23,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서상규(1991b), "現代朝鮮語の程度副詞について - 副詞<아주>の<程度>と<様態>の意味を中心に", 朝鮮學報」140, 朝鮮學會

서상규 외(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 신원프라임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 서울대 출판부

13)교수 순서의 번호는 한국어 학습자의 등급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교수 순서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www.kci.go.kr

손세모돌(1998), “정도부사들의 유표적 자질 분석”, 「+한말연구」4, 한말연구학회
신현숙(2005), {입다/벗다}의 어휘 정보, 「국어교육」116, 한국어교육학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연세 한국어」1, 2, 3, 연세대학교 출판부
오경숙(2003), “‘보다’ 비교 구문의 의미와 정도성”, 「국어학」41, 국어학회
우순조(2008), “‘-보다’ 성분의 유형과 유사 비교 구문”, 「언어학 52, 한국언어학회
유현경(2007a), “‘사이’, ‘동안’의 어휘 정보 연구”, 「한국어교육」18-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유현경(2007b), “‘속’과 ‘안의 의미 연구 -결합 관계를 중심으로”, 「한글 276, 한글학회
유현경・남길임(2008), “結合關係による‘아래’と‘밑’の意味硏究”, 「朝鮮學報」208, 朝鮮學會
이기황(1998), “말뭉치에 나타난 반대말의 쓰임새”, 언어정보의 탐구1」,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임지룡(1989), 「국립 대립어의 의미 상관체계」, 형설출판사
임채훈(2010), “정도부사의 의미기능과 문장의미 구성”, 「어문연구」38-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장정래(2001), “정도부사의 한일 대조연구”, 「일어일문학연구 39집, 한국일어일문학회
전수태(1997), 「국어 반의어의 의미 구조」, 박이정
정인수(1998), “국어 차등 비교 형용사 구문의 의미 연구”, 「어문학」63집, 한국어문학회
한글학회(1991),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한송화(2000), 「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한국문화사
한송화・강현화(2004), “연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15-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松本曜(2007), “反義性の程度に關する認知意味論的考察”, 日本言語學會第135回大會發表要旨
Knoch, Ute(2004), “A New Look at Teaching Comparisons – a Corpus-Based Study, *Journal of Language and Learning,* Vol.2 No.2
Murphy, M. Lynne(2003), *Semantic Relations and the Lexic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봉미경(Bong, Mikyung)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전자 우편: mkbong99@gmail.com

www.kci.go.kr

원고 접수일: 2011년 3월 2일
원고 수정일: 2011년 4월 6일
게재 결정일: 2011년 4월 13일

www.kci.go.kr